

# TV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윤일수\*\*

|| 차례 ||

- I. 머리말
- II. TV프로그램 속의 사이코드라마
  - 1.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 2. 부적응상황 해결을 위한 솔루션
- III. 수용자들의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인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요즘 솔루션 형식의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가 방영되는 빈도가 잦다.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코드라마의 특성상 비밀보장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폐쇄집단에서 실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TV라는 매체의 특성상 공개되는 것은 전통적 사이코드라마 진행방식과 다르다. 이처럼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는 변형된 사이코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연구결과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는 사이코드라마가 참가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시간에 핵심적인 몇 장면만 소개함으로써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이 논문은 제15차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연차학술대회(2012.2.3)에서 발표된 『TV프로그램이 사이코드라마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하였음.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참가자들의 은사권(隱私權)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가명 사용과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은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이코드라마 (Psychodrama)’는 용어가 주는 선입견으로 인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나,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됨으로써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선입견과 거부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코드라마는 집단치료의 일종이므로 주인공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집단도 치유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사이코드라마의 이러한 집단치료적인 성격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TV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집단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까지 치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사이코드라마의 변형된 형태인 ‘플레이백 씨어터(Playback theater)’를 사이코드라마로 오인하고, 그것을 소개한 ‘심리치료극’을 사이코드라마를 명명하는 용어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가 방영됨으로써, 변형된 사이코드라마를 전통적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이코드라마의 대중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점이 있다.

주제어 : 사이코드라마, 은사권(隱私權), TV프로그램, 심리치료, 플레이백 씨어터, 심리치료극, 수용미학.

## I. 머리말

요즘 TV프로그램 중에는 솔루션(Solution)<sup>1)</sup>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문제상황이 공개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다. 예를 들면 SBS Plus <미워도 다시 한번>, MBC <생방송 오늘 아침-사랑 더하기><sup>2)</sup>, KBS2 <현장출동 인권수사대 호루라기>, SBS <긴급출동 SOS 24>, SBS <실제상황 토요일-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KBS1

1) 솔루션(Solution)은 비즈니스 또는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조합을 가리킨다.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조사, 운영체제 등과 같은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2) MBC <생방송 오늘아침 사랑 더하기>는 2009년 1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29일까지 총 83회에 걸쳐 방송되었으며, <4주후 愛>와 <사랑 더하기>는 같은 프로그램인데 제목만 다르게 명명한 것이다.

<아침마당> 등이다.<sup>3)</sup> 이중 상당수는 솔루션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문제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처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중 일부 프로그램은 사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비롯한 인적사항과 실물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솔루션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 개인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솔루션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이코드라마의 경우, 사후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도 비밀보장을 매우 중시여긴다.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는 데 주인공에게 방해되는 인물이 현장에 있을 경우, 진행자는 그 인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이코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문밖에 나가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관련되는 인물이 현장에 있으면 주인공이 내면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노출하지 못하므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대체로 그 범주에 드는 사람은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인공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습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불문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과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적대자(Antagonist) 앞에서 진행함으로써, 적대자는 물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공개된다. 이러한 진행방식이 주인공과 그 가족 나아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본고에서는 TV프로그램을 넓은 의미의 문학작품으로 보고 수용미학적인 측면에서 TV프로그램과 시청자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

3) 시청률: <긴급출동 SOS 24> 13.3% 『광남일보』, 2009.11.24.;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6.3% 『주간 동아』, 497호, 2005.8.9.; 12% 『스포츠 서울』, 2005. 8.30.; <아침마당> 7.7% 2012.03.15 기준, TNmS.

용미학(Rezeptionsästhetik)은 문학작품의 이해와 평가를 독자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수용자 중심적인 문학연구이론이다.<sup>4)</sup> 여기서 ‘수용’이라는 것은 창작 텍스트가 수용자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수취인 [독자]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향’이라는 것은 문학 작품이 구체적으로 읽혀질 때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sup>5)</sup>

본고는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코드라마를 변형적으로 방영함으로써 그것을 정통 사이코드라마로 오인하여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이루어진다. 즉 비밀보장을 중요시하는 ‘사이코드라마’를 TV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연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그로 인해 참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TV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 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요즘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가 많이 방영됨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렇지만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시청자들의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데이트 상대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잦은 시청이 젊은이들의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가볍고 왜곡된 태도와 무책임한 성적 의사결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TV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4)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p.26.

5) 위의 책, p.29.

6) 김미라,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2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8.4.

에 대한 수용미학적인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TV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든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중·고·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세베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분석은 2012년 3월 21일까지 SPSS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 내용은 TV프로그램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한 경험 여부와 직접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참가한 경험여부,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했다면 그것에 대한 소감과 느낌, 사이코드라마를 명명하는 용어,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용어인 '사이코드라마'와 비슷한 용어로는 '심리극'과 '심리치료극'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코드라마'를 사용한다. '사이코드라마'는 191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레노(Moreno)가 '자발성 극장'을 조직하면서 고안한 정신요법의 하나로,<sup>7)</sup> 1975년에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의료부장으로 있던 김유광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면서 사용한 용어다.<sup>8)</sup> 초창기에는 사이코드라마가 주로 정신과 환자들에게 즉흥적인 연기를 하도록 하여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를 분석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당시는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고 감춰야 할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그것을 치료하는 매체인 '사이코드라마'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말로 번역된 '심리극'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sup>9)</sup>와 같이 변형된 사이코드라마 양식이 소개되면서 '심리치료극'이

pp.353-450.

7)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p.78.

8) 김유광·이정숙 공역, 『아곱 레비 모레노』, 하나의학사, 1999, p.3.

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용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어에 따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 역시 근소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사이코드라마’는 정통 사이코드라마를 지향하는 집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심리극’은 사이코드라마라는 용어가 가지는 거부감을 다소 순화시키고자 하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치료극’은 다른 예술치료와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대상은 총 1067명으로 여성 535명(50.1%), 남성 532명(49.9%)이다. 조사대상의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분포는 <표1>·<표2>·<표3>과 같다.

<표 1> 연령별 응답자수 \*시스템 결측값 1(0.1%) ( ): %

13-15세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48 (4.5)	400 (37.5)	537 (50.3)	31 (2.9)	38 (3.6)	11 (1.0)	1 (0.1)	1,066 (99.9)

<표 2> 학력별 응답자수 \*시스템 결측값 1(0.1%) ( ): %

초졸	중졸	고졸	대학재	대졸	대학원재	합계
55 (5.2)	379 (35.5)	20 (1.9)	570 (53.4)	34 (3.2)	8 (7)	1,066 (99.9)

<표 3> 직업별 응답자수 \*시스템 결측값 3(0.3%) ( ): %

학생	전업주부	상업·자영업	교육자	회사원	공무원	전문관리직	기타	합계
973 (91.2)	4 (0.4)	4 (0.4)	14 (1.3)	36 (3.4)	13 (1.2)	13 (1.2)	7 (0.7)	1,064 (99.7)

9)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는 1975년 폭스(J. Fox)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잘 훈련된 보조자에 의해 사이코드라마적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직접 행위하기를 꺼려하는 주인공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이코드라마와는 다른 변형된 양식이다. 최현진, 앞의 책, p.597.

응답자들의 연령은 20~29세[537명, 50.3%], 16~19세[400명, 37.5%]로 10대 후반부터 20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학력은 대부분 대학재학[570명, 53.4%]과 중졸[고등학교 재학 379명, 35.5%]로 학생[973명, 91.2%]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II. TV프로그램 속의 사이코드라마

각종 TV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사이코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사이코드라마는 통상적으로 풀(Full)드라마를 하는 데 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TV프로그램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핵심적인 장면 몇 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30분~60분 동안 사례 하나를 소개하지만,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정작 사이코드라마에 할애하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 1.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미워도 다시 한번>과 <생방송 오늘 아침-사랑 더하기>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솔루션 참가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다.

#### 1) SBS Plus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부부

SBS Plus 예능오락프로그램 <미워도 다시 한번>은 현재 결혼 18년차인 이봉원·박미선 부부가 MC를 맡아 진행하는 이혼위기 부부솔루션이다. 2011년 1월 21일 첫 방송된 이래, 각 기수별로 16~17회 정도 방영하는

데 현재 4기 부부의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0)</sup> 3기의 경우, 솔루션에 참가신청을 한 부부가 1,000쌍이 넘을 정도로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sup>11)</sup> 동시간대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에서 시청률 1위(14.13%, AGB닐슨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sup>12)</sup>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100일 동안 이혼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솔루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별로 댄스스포츠 연습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부부의 솔루션 진행과정

회차	내용
35	부부들의 일상생활을 관찰, 현재 갈등양상과 반응 파악
36	엑스페리먼트 I: 엘리베이터, 억눌린 심리분석
37	분노표출 솔루션: 패닉룸, 토마토 투척
38	가상이혼법정: 세간나누기[장서갈등부부·10대부부]
39	가상이혼법정: 세간나누기[고부갈등부부·재결합부부]
40	4인용 시크릿: 가족갈등진단, 플레이백 써어터[심리치료극]
41	러브하우스: 부부간의 애정도를 높이는 물 위의 하룻밤, 전원테라피, 뮤직테라피[음악치유]
42	판도라의 상자: 최면치료[고부갈등부부·장서갈등부부]
43	솔루션II: 판도라의 상자, 사이코드라마[심리극], [재결합부부II]
44	부부파이터클럽: <파이터 클럽>에서 만나다, 3분간 하고 싶은 말하기, 1분 스파링, 대화법 지도
45	침실을 뒤엎어라: 에스맨 프로젝트, 슈퍼맨되기

10) 1기 부부(2011.1.21~5.6; 1~17회), 2기 부부(2011.5.13~9.2; 18~34회), 3기 부부(2011.9.9~12.26; 35~50회), 4기 부부(2011.12.30~; 51회~)

11) SBS Plus <미워도 다시 한 번>, 2011년 9월 9일 방송.

12) 2012년 2월 17일 방송분에 대한 AGS닐슨 기준임. 『티브이데일리』, 2012.2.24.



46	댄스솔루션 중간평가
47	리마인드 웨딩: 초심으로 돌아가기, 웨딩화보 촬영
48	멘토에게 인생을 배우자: 양희은 뮤지컬 초대
49	최종무대 D-1, 댄스솔루션 최종대회
50	솔루션 이후 10대 부부의 일상

16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솔루션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재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이다.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부부의 일상적인 갈등양상과 반응양상을 파악한 후, 엘리베이터 실험을 통해 현재의 부부관계를 진단한다. 그 결과 네 쌍의 부부 모두 엘리베이터 내의 양쪽 벽면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와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에드워드 홀은 친밀한 부부라면 0~46cm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부라면 46~122cm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다.<sup>13)</sup> 그런데 네 쌍의 부부는 제한된 엘리베이터 내의 공간에서 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노는 결혼생활을 망가뜨리는 주요원인으로,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부부가 많다고 한다.<sup>14)</sup> 따라서 참가자들

13) 에드워드 홀은 사람들간의 보이지 않는 거리를 네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친밀한 거리(0~46cm), 2단계는 개인적인 거리(46~122cm), 3단계는 사회적 거리(122~366cm), 마지막 4단계는 공공적 거리(366cm이상)다. 먼저, 친밀한 거리에 존재하는 사람은 가족·친한 친구·애인·부부 등이다. 이 사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친밀함과 신뢰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린 배타적 공간이다. 두번째 단계인 개인적 거리는 대개의 가족·친한 친구·직장동료 등이다. 카페나 식당에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이다. 세번째 단계인 사회적 거리는 비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일상의 삶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관계들이다.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고 공적이고 필요에 의한 대화를 주로 나누는 관계이다. 마지막인 공공적 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대, 별 의미없이 만나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거의 알지 못하며 자신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로 하여금 패닉룸에서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분출한 후 그들이 원하는 이혼상황을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이혼절차는 외국의 이혼입법례에 비해 간소하여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이혼을 하거나 이혼에 따르는 자녀양육 문제 및 재산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up>15)</sup> 따라서 가상이혼체험을 통해 이혼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를 체험해보도록 하여 이혼문제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단계에서 먼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상처를 전원 테라피·뮤직테라피[음악치유]·플레이백씨어터[심리치료극]·최면치료·사이코드라마[심리극]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겹쳐서 가부장사회에서 억눌려 사는 아내들이 느끼는 결핍된 부분을 부부 파이터클럽·예스맨 프로젝트·리마인드 웨딩 등을 통해 충족시켜주는 과정이 추가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규범인 가부장제는 평등한 부부관계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 현대사회의 서구적 가치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다양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사회기능과 제도적 역할을 중요시하던 것에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인의 가치도 가족중심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었는데,<sup>16)</sup>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들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로 인해 억압받

14) Tian Dayton, Psychodrama Manual Book The Living Stage, 2005. (김세준 역, 『사이코드라마와 집단치료매뉴얼』, 비블리오드라마, 2008. p.415)

15) 김세경,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9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7. p.53.

16) 위의 책, p.57.

을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존재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솔루션을 진행한다. 프란츠 알렉산더(Frantz Alexander)는 ‘정서적으로 재교육된 경험’을 통해 아내가 억압당했던 욕구를 의식으로 끌어올림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sup>17)</sup> 잉여현실의 도움으로 아내가 소망하던 바를 경험하도록 해주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리브하우스에서의 하룻밤, 멘토의 뮤지컬 초대 등을 통해 부부간의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상처를 치료하고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치료, 부부관계의 재구조화, 교정적 정서체험 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3단계는 솔루션을 마친 후 일상으로 돌아간 10대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sup>18)</sup> 또한 댄스솔루션이 전(全) 과정에 걸쳐 병행해서 진행되는데, 중간평가와 최종대회에 한 회기씩 할애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당히 큰 액수를 상금[2천만원]으로 제시함으로써 부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네 쌍의 부부들이 총 100일간 16회에 걸쳐 수행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TV화면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자신들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부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부부의 솔루션에서는 플레이백 씨어터와 사이코드라마가 사용된다. 먼저, ‘심리치료극’이라 명명된 플레이백 씨어터다. 플레이백 씨어터를 ‘4인용 씨크릿’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양가부모와 얽힌 관계를 풀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은 자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17) Adam Blatner, Acting-In : Practical Applications of Psychodramatic methods, Third Edition, New York: Springer, 1996.(최윤미 역, 『사이코드라마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p.110)

18) 솔루션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간 10대부부의 모습을 담은 50회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제3자가 연기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점을 각성하도록 하는 심리치료'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19)</sup> 플레이백 씌어터는 사이코드라마로부터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변형된 형태로,<sup>20)</sup> 진행자가 화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한 뒤, 주요사건·관련인물·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며, 충분한 정보가 파악되면 배우들의 실연이 이루어지고, 진행자와 화자는 옆에서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sup>21)</sup> 이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분석이나 판단없이 정중하게 듣고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고 한다.<sup>22)</sup>

〈표 5〉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부부의 플레이백 씌어터

부부	내용	치유 효과
고부 갈등 부부	백성원: 가장장적인 아버지에 대한 억눌린 감정, 초등학교시절 아버지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으면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부부관계 개선의 의지 생김
장서 갈등 부부	정치섭: 장모와의 첫 만남에서 강간범 취급을 당함	와 닿는 게 아니어서 변화가 있다 없다고 이야기 못하겠지만, 처음보다 나아진 것 같음, 부부관계 유연해짐
	길경선: 어린시절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때렸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 있음	점점 따뜻해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으니 감정이 표해짐, 남편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짐
10대 부부	김하나: 시댁에서 친정 없다고 많이 무시당함	혼자서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운 아버지에게 대한 고마움을 깨달음, 아버지와 화해함

19) SBS Plus <미워도 다시 한번>, 40회, 2011. 10. 15.

20) 최현진, 앞의 책, p.597.

21) David Read Johnson · Renée Emunah, *Current Approaches in Drama Therapy*, CHARLES C THOMAS · PUBLISHER, 2009. (김세준 · 이상훈 역, 『드라마치료의 현재』, 시그마프레스, 2011, p.534)

22) 위의 책, p.539.

재결합 부부	김동권: 장인어른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음,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에 대한 무서웠던 기억이 있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속만 썩혀드린 것을 사죄함, 아버지와 화해함
	이신애: 새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음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만 보면 감정적·공격적이 되는 자신 발견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 아버지와 화해함

네 쌍의 부부는 현재 문제상황을 발생시키는 어두운 상처를 ‘플레이백 씌어터’를 통해 노출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노출로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통해 치유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부부 백성원(33세)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반면 아내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플레이백 씌어터’를 통해 그러한 행동이 어린시절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억눌렸던 감정과 아버지로부터 손찌검 당했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며,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 역시 인지적으로 구성된 드라마를 통해 남편을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배우들에 의해 행위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객관화시켜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문제상황에 대한 자기 진술 → 배우자의 행위화 감상 → 자기 문제점 각성 및 치료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장서갈등부부 정치섭(40세)은 장모와의 첫 만남에서 강간범 취급을 당했던 억울함 때문에 장모를 닮은 아내의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솟아 오르며, 아내 길경선(28세)은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기만 하면, 어린시절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추적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티안 데이톤에 의하면, 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집단과 더불어 행위화하는 것은 상처입었던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체화 자체가 교정적 경험을 제

공한다고 한다.<sup>23)</sup> 즉 현재의 문제 행동을 과거의 외상과 연결시켜 분석해 봄으로써, 외상 자체를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10대부부 김하나(18세)가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재결합부부 김동권(33세)이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에 대한 무서웠던 기억을, 이신애(26세)가 새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행위 화합으로써 해당 인물과 화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플레이백 써어터는 화자가 자기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며 문제점을 스스로 각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행동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기인하는 결과물로 보고, 대상의 문제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며,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결과 종전까지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부부가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상태로 감정전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심리극’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이코드라마’다. ‘플레이백 써어터’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해 사이코드라마는 재결합부부만 참가하고 있다. 재결합부부 김동권과 이신애의 사이코드라마는 17분 동안 방영되는데, 한 사람당 8분 가량 할애된다. 통상적으로 풀 드라마(full-drama)가 3시간 가량 소요되는 데 비해 방영분은 상당히 축약된 형태다. 남편의 사이코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가 옆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이 통상적인 사이코드라마의 진행방식과 다른 점이다.

다음은 김동권과 이신애의 사이코드라마 진행과정이다.

23) 최현진, 『치유적 사이코드라마』,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9권 1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2006. 6. p.4.

〈표 6〉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재결합부부의 사이코드라마

진행과정	김 동 권	이 신 애
문제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능하고 술을 많이 마시던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음, 30세가 되기 전에 번듯한 직장과 집을 가지지 못하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함</li> <li>· 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음, 술을 즐기며 술주정이 심한 아내에게 불만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은 아기가 꿈에 자주 나타남</li> <li>· 아기를 키우기에 부적절한 환경 때문에 출산을 미룸</li> </ul>
치료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년 전 술에 취해 객사한 아버지와의 만남</li> <li>· 주정이 심하고 술을 즐기는 아내와의 만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기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함</li> <li>· 남편과 나란히 아기를 안아보는 잉여현실을 경험함</li> <li>· 시아버지와 아기를 저승으로 떠나보냄</li> </ul>
심리극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내의 좋은 점만 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함</li> <li>· 아내를 향한 새로운 다짐, 폭력 안 쓰고 다 받아줄 것을 약속함</li> <li>· 아버지를 이해함, 돌아가신 아버지께 사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편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함</li> <li>· 합일된 목표를 설정하여 부부관계가 한층 가까워짐</li> </ul>

김동권은 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주정이 심한 아내와 불화가 잦았는데, 그것은 알콜중독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이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밝혀진다. 그간에 김동권은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그칠줄 모르는 폭력을 아내에게 행사했다. 노먼 로젠탈 박사에 의하면, 격노는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도체나 해마같은 뇌부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일단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대뇌피질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감정 억제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격노는 우울증의 전조가 된다고 하는데, 극심한 분노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 중 4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sup>24)</sup> 따라서 남편의 분노조절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

신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김동권은 사이코드라마에서 아버지와 아내를 만나서 하고 싶던 말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봄으로써 분노와 우울증을 유발하던 근원인 묵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사이코드라마를 옆에서 지켜봄으로써 남편의 폭력이 아버지로부터 학습된 것이며, 남편 또한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인지하도록 하여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코드라마는 내담자들이 안전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구체적 형태로 분노에 따른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임상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다. 티안 데이톤의 주장처럼 치료되었다는 것은 내담자들의 반응이 변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일단 감정이 해소되면 분노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처럼 쉽게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실제로 이들 부부는 이후 솔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 과거처럼 분노를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솔루션에 참가함으로써 출연자들의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부부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부부	사전	사후
고부 갈등 부부	백성원: 5분거리 시택에서 자는 게 일상임, 어려울 땐 어머니에게 SOS요청함 시어머니: 아들 내외의 부부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함 박혜진: 부부싸움을 녹취함,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면 문을 잠금	백성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솔루션을 끝까지 해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됨 시어머니: 아들 내외와 분리되기 위해 멀리 이사감 박혜진: 시어머니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수행할 의지가 생김

24) Tian Dayton, 앞의 책, p.415.

25) 위의 책, p.418.



장서갈등 부부	정치섭: 집이 불편해서 매일 밤 밖으로 나감, 내기 골프를 침 채원: 식사도중 갑자기 옷을 벗는 증세 있음, 부모가 불러도 대답 안 함, 부모 를 무의미한 존재로 여김 길경선: 돈 이야기로 남편을 기 죽임	정치섭: 채원에게 책 읽어주며 가족의 모습 찾아감 채원: 부모에게 안기고 잘 따라줌 길경선: 3년만에 결혼반지를 낄
10대 부부	김준혁: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집안일에 무심함, 아내에게 무자비하 게 폭력을 행사함 김하나: 남편에서 심한 욕설을 함, 집안 일에 소홀함, 결혼으로 친정아버지와 관계가 끊김	김준혁: 아내에 대한 폭력 사라짐, 집안 일과 아이 양육을 분담함,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편지를 쓸 여유생김 김하나: 집안일에 보다 충실해짐, 남편 에게 욕설 하지 않음, 친정아버지와 화 해함
재결합 부부	김동권: 일단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음 이신애: 아기를 양육할 좋은 환경을 갖 추지 못해서 출산을 미룸, 자기 자신도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을 자극하여 폭 력을 유도함	김동권: 아기를 낳을 준비를 갖추, 감정 절제가 가능해졌음 이신애: 남편을 수용하고 감정을 절제하 게 됨

이처럼 각자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알게 되어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부부싸움의 횟수와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나아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앨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이러한 결과는 솔루션에 참가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솔루션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 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그리고 고부갈등 부부 백성원의 어머니와 10대부부 김하나의 친정아버지처럼 참가자들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딸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 친정아버지가 먼저 다가가는 형태로

26) <미워도 다시 한번> 48회.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용이론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중시한다. 이것은 텍스트 수용과 영향의 과정으로 수용자와의 소통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텍스트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미워도 다시 한번>은 출연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용자와의 소통과정을 통해 완전하게 탄생한다.

또한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된 솔루션에 참가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연대감으로 인해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의형제’같은 관계가 되었고, ‘비슷한 처지의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풀렸다.’고 한다.<sup>28)</sup> 실제로 집단상담에서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는 다른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기와 유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한다.<sup>29)</sup> 이러한 효과는 3기 부부들의 솔루션을 지켜보는 시청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솔루션형식의 TV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다. 시청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출연자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은 솔루션이 진행되는 동안 솔루션에 참가한 각 부부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달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청자는 텔레가 가는 부부에게 격려나 조언을 할 수 있다. 장서갈등부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11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그 내용은 격려(6), 조언(3), 비난(1),

27) 차봉희 편저, 앞의 책, p.86.

28) <미워도 다시 한번> 41회

29) Marcia Karp, Paul Holmes and Bradshaw Tavon, The Handbook of Psychodrama, Routledge, 1998. (김광운·박희석 외 공역, 『심리극의 세계』, 학지사, 2005, p.259)

분석(1) 등으로 다음과 같다.

많은 부부들이 겪는 과정 그대로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요……. 근데 조금만 바꾸면 서로 웃는 모습으로 넘 행복해 보여서 저도 처음 볼 때는 회복될까 하는 두 분이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장희현, 2011.12.28.><sup>30)</sup>

남편 분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절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가족한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세요. 사람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울부짖고 한을 품고 사는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업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중략) 아내를 왕비 취급하면 자신은 왕이 됩니다. 마음을 제발 여세요.  
<조아름, 2011.10.7.>

10대 남편애보다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더라. 책임감 이전에……. 인간적으로 지 밖에 모르더라……. 자식을 위해서 이혼하심이 맞겠더라. (중략) 처가에서도 어디서 그런 인간말종이 딸년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지 보면서 기가 막힐 듯……. 처가가 그리 싫으면서 그래 장인이 해준 돈 가지고 도박은 해대는데? 아이를 위해서 저런 남자랑은 헤어지세요.  
<조은숙, 2011.10.10>

하도 속 썩혀서 월드 자체를 쳐주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바람편 거 자체는……. 평생 남편을 미워해도. 누구하나 아내가 잘못했다 토 붙일 수 없을 이유죠.  
<최현숙, 2011.9.2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자들의 의견은 장희현과 같이 출연자들의 행동이나 변화된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

30) 피어쓰기 및 줄 바꿈 : 필자가 수정, 이하 동일

그 외에 조아름과 같이 애정어린 조연을 남기거나 최현숙과 같이 출연자의 입장을 분석해주거나 조은숙과 같이 출연자의 행동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견달기는 사이코드라마의 ‘나누기(sharing)’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일반적인 나누기는 ‘공감나누기’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장희현과 같이 주인공의 드라마 과정 중에서 특별히 자신에게 와 닿는 느낌과 그 느낌이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을 주인공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인공의 드라마에 답례를 하는 것이다.<sup>31)</sup> 그런데 ‘의견달기’의 일부 내용과 같이 조연·비난·분석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칫하면 주인공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의 출연자 역시 시청자의 의견달기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달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텍스트는 수용자의 그 순간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계속 다르게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든지 계속 새롭게 또는 다르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sup>32)</sup>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수용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나누기 과정에 분석하는 것은 각성된 연상의 고통에 대한 방어 책략일 수 있으며,<sup>33)</sup> 남편을 비난하는 분노감정은 투사·전이로 인한 반응일 수 있다고 한다.<sup>34)</sup>

야우스가 하나의 예술작품의 역사적 본질은 그 생산과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생산 및 수용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듯이,<sup>35)</sup> 시청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특히 중시하는 TV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31) 최현진, 앞의 책, p.525.

32) 차봉희 편저, 앞의 책, p.38.

33) Marcia Karp, Paul Holmes and Bradshaw Tavvon, 앞의 책, p.262.

34) 위의 책, p.264.

35) Robert C. Holub,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1984.(최상규 역,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p.83.)

‘시청소감’ 내지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청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 시청자에 대한 치유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면 ‘의견달기’에 참여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 부적절한 피드백으로 인해 출연자나 시청자가 상처를 받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워도 다시 한번>이 현재 진행방식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 8〉 〈미워도 다시 한번〉 3기 부부 솔루션의 부정적인 면

	방영 양상	피해(우려) 사항
출연자 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조절이 안 되는 남편 vs 남편 때문에 통곡하는 아내</li> <li>· 두 여자 사이에 낀 남편 vs 시어머니에게 남편 뺀 아내</li> <li>· 고자질쟁이 조울증 남편 vs 바가지 굶는 고양이 아내</li> <li>· 대발이 고3남편 vs 15세에 임신한 어린 신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자를 지칭하는 문구가 시청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오락성에 무게를 두다보니 자극적임</li> </ul>
관련자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갈등부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에게 한 행동이 며느리 입장의 편향된 해석으로 자막처리 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시어머니의 의도가 완전히 무시됨으로써 고부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li> </ul>
부모에게 책임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서갈등부부 김경선의 친정아버지: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함</li> <li>· 장서갈등부부의 동서: 인간취급을 안 해줌</li> <li>· 재결합부부 김동권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객사함</li> <li>· 재결합부부 이신애의 친정아버지: 폭력 행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부모[동서]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모든 책임을 부모[동서]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부모[동서]가 죄인 취급을 당함</li> </ul>
방송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에 대한 폭로· 고발전이 난무함</li> <li>·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는 데 급급하여 배우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li> </ul>

여성중심의 진행	슈퍼맨프로젝트·부부파이팅클럽: 여성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아내들이 그간에 당한 것을 남편에게 복수하는 형태로 진행됨	쌓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직접 되갚음으로써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
솔루션수행의 부담	고부갈등부부의 백성원: 일주일간 직장 일을 정리하고 댄스솔루션을 수행함 고부갈등부부의 이신애: 댄스연습을 하러올 때 아기 맡길 곳이 없어서 고생함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계문제와 양육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이혼극복을 위한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직접적인 감정표출	패닉룸에서 배우자의 영상에 토마토를 투척하고, 당사자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을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또 다른 불편한 감정이 쌓일 우려가 있음
자발성 위주	장서갈등부부의 길경선: 자발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지적임	길경선이 높은 자발성으로 분노감을 표출하게 되면서, 정치섭은 거센 비난을 받게 됨

이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혼위기 부부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기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시청자 또한 출연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반추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작자·출연자·시청자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예능오락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미워도 다시 한번>의 성격상 오락적인 재미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방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으로 제공하는 출연자들의 특성을 살린 명명(命名)은 출연자에게 상처를 줄 소지가 있다. 또한 출연자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양상은 적대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에게 큰 상처를 줄 소지가 있으며,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서도 아내의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양상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줄 소지가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솔루션 프로그램의 특성 상, 시청률을 높이고 솔루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출연자들이 처해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출연자들의 부정적인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이 그동안 쌓인 감정을 당사자인 배우자에게 직접 푸는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패닉룸에서 배우자의 영상에 토마토를 투척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그 당사자가 직접 보게 됨으로써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통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주인공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머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은 출연자, 그중에서도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충실하다 보니 그와 상반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폐해를 안고 있다.

## 2) MBC <생방송 오늘 아침 - 사랑 더하기>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은 2009년 1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29일까지 총 83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에 이혼위기 부부솔루션 <사랑 더하기>를 방영했다. 그중 80회 (2010.10.8)~81회 (2010.10.15.)에 걸쳐 방영된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매일같이 다투는 부모의 싸움을 달려달라는 둘째 딸의 제보로 시작된 솔루션은 부부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지만, 자식을 비롯한 그 외 인물은 가명 사용, 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을 통해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2회에 걸쳐 방영된 이혼위기 부부솔루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생방송 오늘 아침〉 80~81회 솔루션 진행과정

회차	솔루션	내용
80	부부의 일상생활 점검	남편은 야간근무(대리운전)를 하고, 아내는 밤낮으로 아빠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함
	부부의 불만사항 점검	남편: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음 아내: 친구만 좋아하며 밖으로 나도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음
	솔루션: 1차 부부상담, 심리검사 및 성향조사	아내의 문제: 수사관식 대화방식[취조형]을 사용함 남편의 문제: 가장으로서 무책임함
	솔루션: 재무상담	재무상담가에게 연체·채무관계를 상담함
81	심리극 상담	부부의 현재상황극
	부부상담	17년 동안 못한 속마음 이야기하기
	정신과 상담	남편의 직장문제만은 양보하지 않는 아내와 그것이 답답한 남편과 상담함
	솔루션: 분노치료	아내의 개별상담 · 아내: 껍질을 하나 벗겨낸 것 같이 새로운 마음, 가족을 대하는 방식 터득함(대화로 풀어내기)
	솔루션: 아동상담	자녀에 대한 상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함 · 어려운 것 같은 데 자리를 잡아감, 아내와 같이 노력함

80회는 부부의 일상생활 점검과 심리검사를 통해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불만사항을 찾아내어 현재 부부관계를 진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81회는 심리극·부부상담·정신과상담·분노치료·아동상담 등과 같은 각종 상담을 통해 이혼위기를 해결하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심리상담의 일종이나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재무상담도 이루어진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족자원의 장기적 결핍과 불안정이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기된 가족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다고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혼율의 급증하고, 이혼 사유 가운데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듯이,<sup>36)</sup> 이 부부의 갈등이 극에 이르게 된 계기도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아내는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에 대화가 거의 없고 어찌다가 대화를 하더라도 싸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피하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워도 다시 한번>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부부, 특히 아내의 누적된 분노가 원인이다. 분노는 비판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표현방식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적대감 수준(level of hostility, HO)이 높은 부부일수록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노를 줄일 필요가 있다. 분노가 포함된 슬픔을 처리하는 과정에 몰입한 많은 내담자들은, 지금-여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마음이 활기분해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이런 점에서 아내의 분노치료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며, 그로 인해 솔루션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의 분노치료가 사용되고 있다.

81회(2010. 10. 15.)에 방영된 심리극 상담은 심리극전문가인 김영한이 진행한다. ‘부부의 현재상황극’이라는 표제를 달고 진행된 심리극은 남편이 이야기한 과거사를 훈련된 배우들이 역할을 맡아 행위화하고, 그것을 부부가 지켜보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런 점에서 심리극이라기보다 ‘플레이백 씨어터’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TV매체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격한 장면은 만화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순화시켜 보여준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심리극에 할애된 시간은 5분 이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김세경, 앞의 글, pp.58-59.

37) Tian Dayton, 앞의 책, pp.412-415 참조.

〈표 10〉 〈생방송 오늘 아침〉 81회 심리극 진행과정

진행 과정	내용
문제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 집안 일에 무책임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함</li> <li>· 자녀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li> </ul>
치료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살 때, 아버지와 다투던 중, 눈앞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을 보고 받은 충격이 큼</li> <li>· 가출 이후 아버지와 연락 끊고 살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감</li> <li>·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화해함</li> <li>· 돌아가신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할 기회를 가짐</li> </ul>
심리극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에게 있어서 집이란 무섭고 불편한 공간이 된 사연을 알게 됨</li> <li>· 남편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와 불화로 인해 청소년기를 생동감없이 보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와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li> </ul>

부부문제에 대한 일련의 점검이 끝난 후, 뒤이어 진행된 심리극은 통해 집안일에 무책임하고 늘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의 행동은 어린시절 남편이 집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나타난 행동임이 밝혀진다. 나아가 자녀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생동감없이 보낸 청소년기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심리극은 문제행동의 근원을 파헤쳐 보여줌으로써 문제행동을 비난하기보다 열악한 환경때문에 나타난 부적응 현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삼은 사이코드라마는 현재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문제행동이 과거의 상처에서 기인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 대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환경속의 인간,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태학적인 관점이다. 또한 미디어를 통하여 이혼이 사회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표현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현상 덕에,<sup>38)</sup> 이혼위기 솔루션에 참가한 부부들은 실명을 사용하고, 얼굴도 공개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부부가 솔루션에 참가함으로써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11〉 〈생방송 오늘 아침-사랑더하기〉 80~81회 사전/사후

사전	사후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싸움이 돼버림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됨
가족들에게 무심하고 바깥으로만 나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함
침울하고 냉랭한 집안분위기	시끄럽고 활기찬 집안분위기
아버지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상처받음	아버지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온가족이 힘을 모음
집안에만 들어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남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집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취소형 대화를 하는 아내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해결방안을 찾음

〈생방송 오늘 아침-사랑 더하기〉는 출연자의 일상생활과 문제상황을 나레이션을 곁들여 소개한 다음, 뒤이어 MC를 비롯하여 패널과 관련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출연자의 영상이 방영되는 동안 진행팀은 자신들의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영상자료와 함께 오버랩되어 방영된다. 그 결과 이혼위기 부부 솔루션에 진행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따라서 진행팀은 출연자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타자화시키지 않으면서 부부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개입한다.

이러한 진행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청자들도 출연부부의 문제상황

38) 김세경, 앞의 글, p.59.

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건당 100원의 요금  
이 부과되는 문자메세지는 총 41건[80회 17건, 81회 24건]이 접수되었는데,  
시청자들에게는 발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  
리와 함께 문자메시지 내용이 자막을 통해 공개된다. 그것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보면 조언(36)·격려(3)·공감나누기(2) 등으로 다음과 같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애들 아빠, 싸울 수 있는 저 모습조차도 부럽네요.  
(2487)

이혼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8805)

부부가 함께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6678)

이겨내세요. 반드시 쟁하고 해뜰날 오실 거예요. (0311)

오랜 세월 참고 그래도 남편에게 애정이 있는 모습이 참 고맙네요. (0336)

서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네요.  
(6170)

여자분도 너무 뒹달만 하시니 남편분도 숨쉴 공간이 없겠네요. (0966)

가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불안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세요. (4725)

먼저 공감나누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2487·8805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여 공유함으로써 출연자들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에 대한  
수치감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며, 격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6678·0311·  
0336은 출연자들에게 지지를 보냄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6170·0966·4725는 출연자들이 부부관  
계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지만, 출연자들을 비판  
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가 공감나누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청자들에게 대한 ‘문자메시지’ 작성 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부적응상황 해결을 위한 솔루션

부적응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솔루션에 참가했다. 따라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현장추적 인권수사대 호루라기>와 <긴급출동 SOS 24>가 있다.

### 1) KBS2 <현장추적 인권수사대 호루라기> - 26회 ‘20대 손자의 폭력’

2011년 12월 8일에 방영된 KBS2 <현장추적 인권수사대 호루라기> 26회 ‘20대 손자의 폭력’은 2011년 11월 17일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바닷가에서 40년째 갯벌일을 하는 최금영(가명, 71세)은 손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이가 흔들리는 상태라는 것이다. 친족폭행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무거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례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머니·손자는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있다. 한회당 두 개의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편당 방영시간은 30분이 소요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호루라기> 26회 ‘20대 손자의 폭력’ 솔루션 진행과정

솔루션	내용
할머니의 현재생활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의 나이에 갯벌 일을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짐, 20세 손자의 폭력으로 온 몸에 멍이 들고, 이가 흔들림, 손자가 무서워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태임</li> <li>· 손자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함. 존속폭행은 친고죄이므로 할머니의 처벌의사가 없어 돌려보냄</li> </ul>

손자의 현재생활 관찰	무직, 하루 8만원씩 게임, 칼로 할머니 위협, 본드 흡입함
해결책1: 며느리 찾기	바람나서 집을 나간 엄마는 현재 개가한 상태로, 제작진으로부터 아들의 현재 상황을 듣고 연락을 끊음
인권수사대의 개입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희남(노인보호전문기관): 할머니와 손자는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분 리되지 않음, 일시적 분리가 필요함</li> <li>· 김경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음</li> <li>· 김신영(정신과 전문의): 게임장애, 청소년기 행실장애, 인격장애, 우울 증</li> <li>· 건강진단(병원): -할머니: 척추협착증으로 걷기 힘들,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물요법 처방함</li> <li>-손자: 게임중독, 본드중독으로 정신과 진료 필요함, 어린시절 바람난 엄 마가 남자화 도망가고, 아버지도 자살한 것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음</li> <li>· 손자 고백: 할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듬</li> </ul>
심리극 치료	어릴 때부터 자신을 부양해 온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손자의 심리상 태 점검 및 치료
인권수사대의 개입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희남(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기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사춘기 다 른 가정과 비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승화하지 못하고 투사하 여 할머니 폭행함</li> <li>· 강진구(노인보호전문기관): 손자 나올 때까지 어르신 돌보는 곳에서 정서적 치료 권유, 할머니의 거절로 집에서 도움과 관리받기로 함</li> <li>· 김동희(보일러시설업체): 보일러 무상교체 서비스</li> </ul>

이처럼 <현장추적 인권수사대 호루라기>는 제보에서부터 문제 상황에 관한 정보수집, 전문가의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 사회서비스 제공 등 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회당 하나의 사례를 다루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사이 코드라마 방영에 할애된 시간은 5분 내외로 전문가의 문제 상황에 관한 해석과 자료제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수사대의 개입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번째 해결책으로 제시된 며느리 찾기를 비롯하여, 인권수사대의 1·2차

개입은 복지서비스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심리극치료’는 심리상담가 최대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자가 ‘심리극치료’를 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한 후 뒤이어 ‘심리극치료’는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 솔직히 털어놓는 장’이라는 자막처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막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의미의 정박을 뜻할 만큼 수용자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up>39)</sup> 그 결과 자막은 ‘사이코드라마’를 ‘심리치료’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사이코드라마’의 역할을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으로 고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3〉 〈호루라기〉 26회 ‘20대 손자의 폭력’ 손자의 심리극

진행과정	내용
문제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함</li> <li>· 게임중독, 본드 흡입함</li> <li>·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음</li> </ul>
치료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시절,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가자 아버지는 자살함</li> <li>· 18살 때 남자아이들과 살던 중 남의 집 털었다가 경찰에 잡혀감</li> <li>· 손자와 할머니에 대한 인터뷰, 배경처리된 심리극 장면 1~2분 정도 방영함</li> <li>· 할머니 증언: 초등학교 입학식 때, 엄마가 안 왔다는 상처때문에 줄도 서지 않고 있던 손자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다고 함</li> </ul>
심리극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을 구하면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함</li> <li>· 전문가 해석: 최대현(심리상담가)</li> </ul> 책임감 있음, 중요한 출발, 20대라는 연령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혼자 고립되어서 충분한 사회적 훈련 못 받음,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가능성 있음

20대 손자에 대한 심리극은 할머니에 대한 폭력행사· 게임중독· 본드

39) 이혜연·김정은·김혜원, 「수용자의 프로그램 해석에 있어서 자막이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학회 2009년도 봄국제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09. 5, p.168.

흡입 등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일련의 행위가 어린시절 상처 받은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며, 손자 또한 불우한 환경의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손자는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사회성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자 또한 할머니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손자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사이코드라마는 출연자가 안고 있는 문제 상황을 환경 탓으로 돌림으로써, 출연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은 출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그러한 시각은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을 배양시킬 우려가 있다. 정통 사이코드라마처럼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며 출연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 거린 후,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방영할 필요가 있다.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요소는 모두 포함시켜야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시청자들에 대한 치료로 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사이코드라마를 실연한 후 달라진 점이다.

〈표 14〉 〈호루라기〉 26회 심리극 사전/사후

사전	사후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분출함	원인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시작함
할머니의 금전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함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함
게임중독 및 본드중독에 빠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기로 함



손자는 사이코드라마를 한 후, 할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던 패륜아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사이코드라마를 실연한 후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동안 손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놓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손자에게 치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으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40)</sup> 그 결과 이제까지 유일한 안식처였던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보다 가슴 속에 쌓였던 분노를 분출하는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분노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할머니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순기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이코드라마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 <긴급출동 SOS 24> - 240회 '유치원생이 된 딸'

2011년 1월 14일에 방영된 SBS <긴급출동 SOS 24> 240회 '유치원생이 된 딸'은 외할머니에 대한 20세 딸의 멈추지 않는 폭력을 막아달라는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례가 상당히 사적인 내용이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딸 정예림, 어머니 홍정선, 외할머니 서용림, 아버지 정성훈 등은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도 한 회당 두 개의 사례를 보여주므로 편당 방영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 윤일수, 『사이코드라마의 치유적 요소』, 『인문치료의 이론과 원리』, 도서출판 산책, 2011, p.268.

〈표 15〉 〈긴급출동 SOS 24〉 240회 ‘유치원생이 된 딸’ 솔루션 진행과정

솔루션	내용
현재생활 관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생 같은 말투를 사용하고 행동함</li> <li>· 지나치게 먼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li> <li>· 착하고 순하지만 돌발적으로 행동함</li> <li>· 3년째 외할머니와 엄마에게만 폭력을 행사함</li> <li>· 나이답지 않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편임</li> <li>· 할머니: 손녀의 폭력 사실을 숨기려고 함</li> <li>· 아버지: 딸에게 심한 폭력 행사함</li> </ul>
문제상황 진단	<p>김승겸(신경정신과 전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 사소한 일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폭력적임</li> <li>· 어머니: 딸의 분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li> <li>· 아버지: 폭력과 폭언으로 대함</li> </ul>
현재생활 관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에게 밥을 챙겨주면서 정작 자기는 엄마가 챙겨줄 때까지 밥을 안 먹음</li> <li>· 엄마가 있을 때 아무 것도 안하고 챙겨달라고 함</li> <li>·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어린시절의 아픈 기억이 있음</li> <li>· 몇년전 경계성지적능력(IQ70~80) 진단받음</li> </ul>
SOS솔루션 위원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희정(아동상담센터): 경계성지적능력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또래에 비해 어리고 미성숙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함,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고 폭언과 폭력행사함, 부모의 훈육 태도가 중요한 데 부모는 또래에 비해 낮은 판단력을 이해 못하는 상태임</li> <li>· 이현주(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사례에 해당함, 외할머니의 장기적 안정과 부양이 필요함</li> <li>· 김승겸(신경정신과 전문의): 지능이 낮은 사람은 모방을 하므로 부모의 훈육 태도가 문제임, 딸의 폭력은 부모를 모방한 것임</li> <li>· 폭력의 모방성: 아빠가 엄마를 집어던짐, 밥상을 집어던짐 → 부모에게 받은 것 100% 흡수함, 사춘기에 사회생활을 통해 여과하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딸은 안 됨</li> </ul>
심리극치 료	낮은 경계성지적능력으로 인해 폭력피해자에서 폭력가해자가 된 상황점검 및 치료가 이루어짐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전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 딸의 입원치료, 할머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치료 지원, 가족상담치료 받음</li> <li>· 아빠: 딸이 나아진다면 노력하겠다고 다짐</li> <li>· 딸: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를 병행함</li> </ul>

이처럼 <긴급출동 SOS 24>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긴급구조의 성격을 띠므로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문제점이 파악되면, 곧바로 SOS솔루션위원

회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경계선지적능력인 정예림(가명, 20세)에 대한 신경정신과와 아동상담센터의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서용림(가명) 할머니에 대한 노인보호기관의 사회서비스가 병행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처럼 <긴급출동 SOS 24>는 프로그램명에서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조의 형태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방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을 취함으로써 타자화되었던 출연자들을 일반인의 범주 속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솔루션 결과 정예림(가명, 20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현재 폭력의 가해자가 된 상태라는 것이 밝혀진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모방 학습한 것을 청소년기에 사회생활을 통해 여과하게 되는 데 비해 정예림은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모의 행동을 100%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머니에 대한 폭력 또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존속 폭행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이 경우는 경계성지적장애를 가진 정예림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경계성지적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폭력은 모방·학습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리끊기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공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홍보까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행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솔루션 프로그램 참가자처럼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음, ‘심리극치료’는 예술심리치료전문가 최대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자가 ‘심리극’을 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이야기하는 데 그칠 뿐, 자

막처리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없다.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소개도 ‘예술심리치료전문가’라고 자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정예림의 심리극은 1~2분간만 방영되는 상황이므로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사이코드라마라는 것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사이코드라마 진행과정이다.

〈표 16〉 〈긴급출동 SOS 24〉 240회 ‘유치원생이 된 딸’ 딸의 심리극

진행과정	내용
문제증상	·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며 외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함
치료과정	· 바타카를 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 · 아버지에게 폭력당한 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
심리극 종료	· 전문가 분석: 모든 에너지가 집에 머물고 있음,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임,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가능성 있음

전체 방영시간 중에서 사이코드라마에 할애된 시간이 극히 적은 관계로 실제 실연된 사이코드라마의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방영된 내용에 의존한다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주인공을 지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사이코드라마 방영을 통해 시청자도 간접적으로 치료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편집보다는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인공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청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사이코드라마는 폐쇄집단과 진행 방법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이코드라마 방영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솔루션 참가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다.

〈표 17〉 〈긴급출동 SOS 24〉 240회 사전/사후

사전	사후
온 가족들을 괴롭히는 집안의 문제가로 인식됨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배려를 받게 됨
외할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폭군으로 인식됨	폭력을 단절시키기 위한 가족치료를 받게 됨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상처가 많음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기로 함

이처럼 정예림의 솔루션은 환경속의 개인, 즉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행동은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치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늘날 텔레비전은 ‘문화적 무기(cultural weapon)’라 불릴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sup>41)</sup> 〈긴급출동 SOS 24〉의 이러한 시각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기행동이 주변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 3) SBS 〈긴급출동 SOS 24〉 - 235회 ‘거식증 딸의 비밀’

2010년 12월 3일에 방영된 SBS 〈긴급출동 SOS 24〉 235회 ‘거식증 딸의 비밀’은 5년째 섭식장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딸을 구해 달라는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례가 상당히 사적인 관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딸 김영신과 어머니 장숙영은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도 역시 한희당 두 개의 사례를 보여주

41) 정병웅, 「여가활동으로서 텔레비전 시청이 갖는 사회적 함의」, 『관광·레저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1996. 12, p.196.

므로 편당 방영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긴급출동 SOS 24〉 235회 ‘거식증 딸의 비밀’ 솔루션 진행과정

솔루션	내용
현재생활 관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멈추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뒤 토하는 딸</li> <li>· 락스를 먹고 병원에 실려감</li> <li>· 언니에게 폭력을 행사함</li> <li>· 고통을 잊기 위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심</li> </ul>
SOS솔루션 위원회 대책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의 섭식장애 치료를 위한 입원</li> <li>· 딸의 건강상태 진단 및 치료지원</li> <li>· 가족의 심리상담 및 치료</li> </ul>
딸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간의 싸움에 경찰을 부른 것과 섭식장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li> <li>·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모욕감</li> <li>· 거식증의 시작: 고등학생 때 엄마동료가 청바지 입은 모습을 보고 ‘터지겠다.’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아 다이어트를 시작함</li> </ul>
현재생활 관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니의 외출을 못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있기를 요구함</li> <li>·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집착을 보임</li> <li>· 원인: 알코올중독인 아빠에게 맞고 자랐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혼자 지냄</li> <li>· 먹고 구토하는 딸, 말없이 수발하는 엄마, 언니에게 트집 잡으며 험한 말하는 딸, 막내딸의 편만 드는 엄마</li> <li>· 딸을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엄마</li> </ul>
SOS솔루션 위원회 대책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재훈(신경정신과): 구토와 감정통제가 안됨, 돌발적 위험이 잠재함; 자아상이 불안정하므로 충분한 지지가 필요함,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딸 스스로 치료의지 갖는 게 중요함</li> <li>· 박예신(수간호사, 신경정신과): 영양과 식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섭식장애는 병으로 식사조절과 감정통제가 안 됨</li> <li>· 최훈(내과): 20대 골다공증 심각한 상태임</li> <li>· 딸: 섭식장애는 혼자서 치료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원치료를 결심함</li> <li>· 과거 상처를 구토를 통해 해결, 사망가능성 있음, 신체적 정신적 응급상황임</li> </ul>
심리극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섭식장애를 유발한 어린시절의 외로움과 애정결핍상태 점검과 치료</li> </ul>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 가족여행을 감</li> <li>· 엄마 소원: 딸의 치료 후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임</li> <li>· 긴 투병기간 동안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됨</li> <li>· 거식증은 마음의 병이므로 마음의 상처를 함께 살펴보려는 노력과 가족의 지지가 필요함</li> </u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출동 SOS 24>는 긴급구조의 성격을 띠며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간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김영신(가명)의 신경정신과와 내과의 진단이 이어지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뒤따른다.

사회규범 상, 할머니를 폭행하는 손자, 외할머니를 폭행하는 정예림(가명)은 존속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솔루션은 이러한 부적응행동이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 역시 환경의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TV프로그램의 시각은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기 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한다. 이것은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는 더불어 사는 윤리와 사회 구성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sup>42)</sup> 이 점은 문학 텍스트를 독자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를 의도하고 있는 지시물이라 보았듯이,<sup>43)</sup> 솔루션 형식의 프로그램 역시 의도성이 있는 지시물이다. TV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면에서 본다면 지시물의 의도는 충분히 성취되고 있다.

다음, ‘심리극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앞서 살펴본 ‘거식증 딸의 비밀’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진행 환경이 동일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9〉 〈긴급출동 SOS 24〉 235회 ‘거식증 딸의 비밀’ 딸의 심리극

진행과정	내용
문제증상	· 폭식을 하고 곧바로 구토를 해버리는 증세로 늘 배고프다고 호소함 · 가족을 힘들게 하며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함

42)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pp.394-395.

43) 차봉희 편저, 앞의 책, pp.85-86.

치료과정	· 바타카를 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음
심리극 종료	· 전문가 분석: 섭식장애는 외모나 다이어트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관심과 연결됨 · 기본적인 애정이 바탕이 되었을 때 좋아질 가능성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출동 SOS 24>는 사이코드라마에 할애하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방영분에 의하면 현재 김영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증상들이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쌓은 분노를 분출하므로 카타르시스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솔루션을 진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다.

〈표 20〉 <긴급출동 SOS 24> 235회 사전/사후

사전	사후
폭식과 구토가 반복되는 식생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신 것임을 파악하고 치료에 들어감
딸의 폭력으로 인해 집안분위기가 살벌함	딸의 치료를 위해 집안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짐
집안의 골치 덩어리가 된 딸	이해와 배려를 받게 됨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음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치료하게 됨

이상과 같이 <긴급출동 SOS 24>는 긴급위기에 대한 긴급구조의 성격에 맞게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김영신의 거식증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제행동이 아버지의 폭력에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를 입게 될 우려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Ⅲ. 수용자들의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941명<sup>44)</sup> 중 TV프로그램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성 126명, 여성 256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직접 사이코드라마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역시 남성 15명, 여성 29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윤일수(2011)에 의하면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은 여성[71]: 남성[21]: 기타[8]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높은 참여도는 다른 상담관련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억압받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45)</sup> 그리고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에 비해 직접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이코드라마 현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사이코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관련기관[65%], 기타 학회[13%], 기타 단체[12%], 학교 동아리[9%] 등이다.<sup>46)</sup>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의 경우, 매월 전국월례집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8개 시도에 설치된 지부학회에서도 매월 지부학회월례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1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차대회 1회[4일/24마당], 전국월례집담회 8회[15

44) 총 응답자 1067명과 오차가 나는 것은 결측값 발생으로 인한 것이다.

45) 윤일수, 『사이코드라마 주인공의 효율적인 선정 방식』,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권 1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2011.12. p.37.

46) 위의 글, p.39.

일/31마당], 지부학회 월례집담회 43회[43일/43마당] 등으로 총 52회[62일 / 98마당] 열린다.<sup>47)</sup> 평균적으로 한달에 4회[5일/ 8마당] 가량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이 열리지만, 그 장소가 전국적임을 고려한다면 직접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참가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이코드라마 명칭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많이 들 어본 사이코드라마 명칭에 대한 성별 분포는 <표21>과 같다.

<표21> 성별 사이코드라마 시청 및 직접 참가 여부 ( ): %

성별		남성					
		있다			없다		
TV로 시청한 경험		있다			없다		
직접 참가한 경험		있다	없다	소계	있다	없다	소계
많이 들은 명칭	사이코드라마	7 (5.6)	39 (33.6)	46 (36.5)	3 (0.9)	91 (27.9)	94 (28.8)
	심리극	0 (0.0)	28 (24.1)	28 (22.2)	0 (0.0)	97 (29.8)	97 (29.8)
	심리치료극	2 (1.6)	45 (38.8)	47 (37.3)	2 (0.6)	95 (29.1)	97 (29.8)
	기타	1 (0.8)	4 (3.4)	5 (4.0)	0 (0.0)	38 (11.7)	38 (11.7)
소계		10 (7.9)	116 (92.1)	126 (100)	5 (1.5)	321 (98.5)	326 (100)
합계		452					

47) 이러한 통계는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권 1호(pp.101-108)와 14권 2호(pp.189-194)에 게재된 회보를 참조로 작성한 것이다.

성별		여성					
TV로 시청한 경험		있다			없다		
직접 참가한 경험		있다	없다	소계	있다	없다	소계
많이 들은 명칭	사이코드라마	6 (2.3)	68 (26.6)	74 (28.9)	1 (0.4)	50 (21.5)	51 (21.9)
	심리극	6 (2.3)	45 (17.6)	51 (19.9)	2 (0.9)	71 (30.5)	73 (31.3)
	심리치료극	11 (4.3)	111 (43.4)	122 (47.7)	2 (0.9)	85 (36.5)	87 (37.3)
	기타	1 (0.4)	8 (3.1)	9 (3.5)	0 (0.0)	22 (9.4)	22 (9.4)
소계		24 (9.4)	232 (90.6)	256 (100)	5 (2.1)	228 (97.9)	233 (100)
합계		489					

이처럼 남성은 심리치료극[144명], 사이코드라마[140명], 심리극[125명] 등으로 ‘심리치료극’과 ‘사이코드라마’를 비슷한 비중으로 들었다는 데 비해, 여성은 ‘심리치료극’[209명], 사이코드라마[125명], 심리극[124명] 등으로 ‘사이코드라마’보다 ‘심리치료극’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코드라마는 명칭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성들이 ‘심리치료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다는 것은 TV프로그램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TV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사이코드라마’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 22〉 프로그램별 사이코드라마 명칭 사용과 전문가 소개

프로그램명	방영시간	사이코드라마 소개	공지	진행자 소개
미워도 다시 한번, 40회	60분[6명]	플레이백시어터·심리치료극	자막	심리극전문가

미워도 다시 한번, 43회	17분[2명]	사이코드라마· 심리극	구두 자막	심리극전문가
생방송 오늘 아침-사랑 더하기, 81회	5분 [1명]	심리극 상담	자막	심리극전문가
현장추적 인권수사대 호루라기, 26회	3분 [1명]	심리극 치료	자막	심리상담가
긴급출동 SOS 24, 240회	3분 [1명]	심리극 치료	구두	예술심리치료 전문가
긴급출동 SOS 24, 240회	3분 [1명]	심리극 치료	구두	예술심리치료 전문가

이처럼 각종 프로그램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이코드라마’, ‘심리극’, ‘심리극 상담’, ‘심리극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코드라마’가 정식명칭이고 ‘심리극(心理劇)’은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이다. 따라서 ‘심리극’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치료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매체에서는 ‘치료’라는 용어를 덧붙여 동어반복(同語反覆)으로 ‘심리극 치료’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코드라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심리치료극’[353명], ‘사이코드라마’[265명], ‘심리극’[249명] 등의 순으로 많이 들어보았다고 한다. ‘심리치료극’은 방송을 통해 생성된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식 용어처럼 인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코드라마’의 변형된 형태인 ‘플레이백 시어터’는 진행방식에서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TV프로그램을 통해 축약된 형태로 소개되는 과정에 그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플레이백 시어터’와 ‘사이코드라마’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플레이백 시어터’를 지칭하는 ‘심리치료극’과 ‘사이코드라마’를 소개하는 ‘심리극 치료’라는 용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혼동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는 진행자를 소개하는 데 ‘심리극전문가’, ‘심리상담가’, ‘예술심리치료전문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TV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나마 장시간 실연장면을 보여주는 <미워도 다시 한번>과 <생방송 오늘 아침- 사랑 더하기>에서는 ‘심리극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장추적 인권수사대 호루라기>에서는 ‘심리상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긴급출동 SOS 24>에서는 ‘예술심리치료전문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진행자가 ‘예술심리치료전문가’로 소개되는 <긴급출동 SOS 24>는 ‘심리극 치료’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공지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역부족이다.

다음은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한 느낌에 대한 것이다.

〈표 23〉 성별 명칭 및 느낌 ( ): %

	재미있다		재미없다		신기하다		좋다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이코드라마	20 (13.0)	34 (22.1)	5 (15.2)	4 (12.1)	14 (8.9)	27 (17.1)	6 (15.8)	9 (23.7)	45 (11.7)	74 (19.3)
심리극	9 (5.8)	20 (13.0)	4 (12.1)	6 (18.2)	11 (7.0)	22 (13.9)	5 (13.2)	4 (10.5)	29 (7.6)	52 (13.6)
심리치료극	14 (9.1)	48 (31.2)	5 (15.2)	7 (21.2)	23 (14.6)	60 (38.0)	4 (10.5)	8 (21.1)	46 (12.0)	123 (32.1)
기타	4 (2.6)	5 (3.2)	1 (3.0)	1 (3.0)	0 (0.0)	1 (0.6)	0 (0.0)	2 (5.3)	5 (1.3)	9 (2.3)
소계	47 (30.5)	107 (69.5)	15 (45.5)	18 (54.5)	48 (30.4)	110 (69.6)	15 (39.5)	23 (60.5)	125 (32.6)	258 (67.4)
	154		33		158		38		383	

명칭별 느낌은 <표23>과 같이, 신기하다[158명], 재미있다[154명], 좋다

[38명]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재미없다[33명]는 부정적인 반응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심리치료극[169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응해 주었으며, 사이코드래[119명], 심리극[81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이 시청자들은 TV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게 된 신조어 ‘심리치료극’을 사이코드라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이코드라마를 ‘재미있다’고 하거나 ‘신기하다’고 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중이 높다. 즉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가 방영됨으로써 사이코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쇠신된 것이다. 그 외에도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은 20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제되었던 10대에게 간접적이거나 사이코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10대까지 사이코드라마의 잠재적 수요자로 끌여들일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TV프로그램은 사이코드라마의 대중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명칭별로 살펴본, 향후 직접 사이코드라마에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24〉 명칭별 참여여부 ( ) : %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621a	9	.473		

  

	하고싶다	하고 싶지 않다	타인에게 권하겠다	기타	합계
사이코드라마	43(11.3)	58(15.3)	12(3.3)	4(1.1)	117(30.8)
심리극	26(6.8)	42(11.1)	9(2.4)	4(1.1)	81(21.3)
심리치료극	66(17.4)	75(19.7)	22(5.8)	5(1.3)	168(44.2)
기타	4(1.1)	8(2.1)	0(0.0)	2(0.5)	14(3.7)
소계	139(36.6)	183(48.2)	43(11.3)	15(3.9)	380(100)

또한 <표24>에서 드러나듯이 명칭별 참여희망 여부는 심리치료극[39% : 45%], 사이코드라마[37% : 50%], 심리극[32% : 52%] 등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하고 싶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타인에게 권하겠다.’를 포함한다면 심리치료극[52% : 45%], 사이코드라마 [47% : 50%], 심리극[43% : 52%] 등과 같이 ‘심리치료극’만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TV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게 된 ‘심리치료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본 층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 답변이 많이 나온 것은 TV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이 ‘사이코드라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처럼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은 사이코드라마 정신에 위배되는 점이 많기는 하지만, 사이코드라마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사이코드라마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관한 것이다. 사이코드라마를 ‘행위화를 통한 치료형식의 방법’<sup>48)</sup>으로 보고, ‘치료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반복적인 정의도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응답과 오답은 통계에서 제외한다.

<표 25> 명칭별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올바른 정의 ( ) : 정신질환자

명칭 \ 정의	TV로 시청		TV로 무시청		합계
	직접 경험	직접 무경험	직접 경험	직접 무경험	
사이코드라마	3	38	2	42(1)	85(1)
심리극	(2)	7	0	33(7)	42(9)
심리치료극	6	60(1)	2	64(3)	132(4)

48) 최헌진, 앞의 책, p.25.

기타	0	0	0	10	10
합계	11(2)	105(1)	4	149(11)	269(14)

이처럼 사이코드라마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한 응답자는 심리치료극 [132명], 사이코드라마[85명], 심리극[42명] 등으로 ‘심리치료극’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 <표21>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명칭별 응답자와 성격을 올바르게 아는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심리치료극 [353명/37%], 사이코드라마[265명/32%], 심리극[249명/17%] 등과 같다. 즉 ‘심리치료극’과 ‘사이코드라마’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들어본 응답자가 사이코드라마 성격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텔레비전을 통해 사이코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나 시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간의 사이코드라마 성격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효과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텔레비전의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는 과정에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게 ‘심리극’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응답자들은 사이코드라마 성격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비중이 낮은 편(17%)이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를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심리극(9명), 심리치료극(4명), 사이코드라마(1명)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정신질환자’라는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사이코’, ‘정신이 이상한 사람’ 등의 응답을 포함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코드라마’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던 초창기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이코드라마’가 가지는 용어상의 선입견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심리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심리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다는 응답자 중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아직까지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홍보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본고는 각종 TV프로그램에서 비밀보장을 중시하는 ‘사이코드라마’를 공개적으로 방영함으로써, 변형적 사이코드라마를 정통 사이코드라마로 오인하여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TV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용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TV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출연을 자원한 경우가 아니면 가명을 사용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출연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우려할 수준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둘째, 주인공 중심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출연자 입장에서 진행되다보니 출연자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폐쇄집단에서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시청자들은 본래의 명칭인 ‘사이코드라마’나 그것을 번역한 ‘심리극’보다 ‘심리치료극’을 더 많이 들어봤다고 한다. ‘심리치료극’은 플레이백 씨어터를 지칭하는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코드라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코드라마와 플레이백 씨어터는 진행 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TV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몇 장면만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둘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 따라서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시청자들의 소감은 공감·격려·조언·비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연자가 내면의 깊은 사연까지 공개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조언이나 비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청자들의 소감은 출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이코드라마에서 공감나누기만 허용하듯이 TV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들의 ‘소감나누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이코드라마는 20세 이상 참석가능하다는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10대층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TV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됨으로써 10대들도 사이코드라마를 경험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런 점에서 TV프로그램의 사이코드라마 방영은 사이코드라마를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

여섯째,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오락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출연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솔루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칫하면 출연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TV프로그램에서 사이코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사이코드라마를 간접적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로 인해 사이코드라마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사이코드라마의 대중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이코드라마를 지칭하는 용어와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용어 정리와 사이코드라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KBS2 <현장출동 인권수사대 호루라기>, 26회 ‘20대 손자의 폭력’, 2011.12.8.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사랑 더하기>, 80~81회, 2010.10.8~10.15.  
 SBS <긴급출동 SOS 24>, 235회 ‘거식증 딸의 비밀’, 2010.12.3.  
 SBS <긴급출동 SOS 24>, 240회 ‘유치원생이 된 딸’, 2011.1.14.  
 SBS Plus <미워도 다시 한번>, 35~50회 3기 부부, 2011.9.9~12.26.  
 『티브이데일리』, 2012.2.24.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편, 『취보』,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권 1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2011.6. pp.101-108.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편, 『취보』,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권 2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2011.12. pp.189-194.

### 2. 논문

- 김미라,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8.4. pp.353-450.  
 김세경,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9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7. pp.47-64.  
 손현동,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5권 2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2007. pp.3-14.  
 윤일수, 『사이코드라마 주인공의 효율적인 선정 방식』,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권 1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2011.12. pp.35-61.  
 이혜연·김정은·김혜원, 『수용자의 프로그램 해석에 있어서 자막이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학회 2009년도 봄국제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09.5. pp.168-169.  
 정병웅, 『여가활동으로서 텔레비전 시청이 갖는 사회적 함의』, 『관광·레저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1996.12. pp.195-210.  
 최현진, 『치유적 사이코드라마』,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9권 1호,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2006.6. pp.1-19.

### 3. 단행본

- Adam Blatner, *Acting~In : Practical Applications of Psychodramatic methods*, Third Edition, New York: Springer, 1996.(최윤미 역, 『사이코드라마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David Read Johnson · Renée Emunah, *Current Approaches in Drama Therapy*, CHARLES C THOMAS · PUBLISHER, 2009. (김세준 · 이상훈 역, 『드라마치료의 현재』, 시그마프레스, 2011.)
- Marcia Karp, Paul Holmes and Bradshaw Tavon, *The Handbook of Psychodrama*, Routledge, 1998. (김광운 · 박희석 외 공역, 『심리극의 세계』, 학지사, 2005.)
- Robert C. Holub,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1984.(최상규 역,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 Tian Dayton, *Psychodrama Manual Book The Living Stage*, 2005. (김세준 역, 『사이코드라마와 집단치료매뉴얼』, 비블리오드라마, 2008.)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엮음, 『인문치료의 이론과 원리』. 도서출판 산책, 2011.
- 김수동 · 이우경,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학지사, 2003.
- 김유광 · 이정숙 공역, 『야곱 레비 모레노』, 하나의학사, 1999.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Abstract**

## Influence of Telecast of Psychodrama as a TV Program on Viewers' Recognition

Yoon, Il-Soo

Nowadays, psychodramas are being telecast as one of TV programs with a high frequency by way of a solution-style TV program. As psychodramas are performed with the object of psychotherapy, it is a custom to be carried out within a closed group in which the right of privacy protection is promised. However, the psychodramas are being opened to the public on TV program,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rocedures of traditional psychodram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thesis is to examine out the influence of telecast or introduction of the mutated psychodramas on the viewers' recognition on the psychodramas. Contrary to the concern that the psychodramas on TV may invade the participant's privacy, the psychodramas on TV secure the right of privacy to the maximum because they just introduce some crucial scenes in a extremely limited time. Some TV programs secure the right of privacy to the maximum by using an assumed name and blotting out the participant's face or the contents related with privacy by a camera blur. In addition, the viewers tend to have a sense of repulsion to the psychodramas due to the prejudice resulted in the term, 'psychodrama'. But, being telecast on TV program, the psychodramas contribute to lessen the prejudice and the sense of repulsion to 'psychodrama'. Furthermore, psychodrama, a kind of group therapy, gives a therapeutic experience to not only the main character but also to the whole members of the group who participate in the psychodrama. Just like this, the psychodramas telecast on TV program are providing a therapeutic experience for both the group participated in the TV program and the viewers. Finally, most of the viewers mistake the 'Playback theater' on TV, a mutated form of psychodramas originally, as a psychodrama itself. And

then, they tend to recognize the 'psychotherapeutic drama' as a term of naming psychodrama. In conclusion, most people tend to mistake the mutated psychodrama telecast on TV as a traditional one.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telecast psychodrama contribute to popularization of psychodrama considerably.

Key-words : Psychodrama, Right of privacy, TV program, Psychotherapy, Playback theater, Psychotherapeutic drama, Reception esthetics.

윤일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주소 :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사업단

전화번호 : 010-6866-9525

전자우편 : yoon9525@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

**【부록】**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TV프로그램에 방영된 심리극[사이코드라마]의 방영동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윤일수 드림  
(yoon9525@hanmail.net, ☎ 010-6866-9525)

♠ 인적사항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① 12세이하 ② 13-15세 ③ 16-19세 ④ 20-29세  
          ⑤ 30-39세 ⑥ 40-49세 ⑦ 50-59세 ⑧ 60세 이상
3. 학 령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학재학 ⑤ 대졸  
          ⑤ 대학원이상 ⑥ 대학원재학
4. 혼 인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5. 자 녀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이상
6. 직 업 :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상업·자영업 ④ 농업 ⑤ 교육자  
          ⑥ 회사원 ⑦ 공무원 ⑧ 전문관리직 ⑨ 기타(    )

♠ 심리극[사이코드라마/심리치료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보지않음 ② 1시간이하 ③ 1-2시간  
④ 2-3시간 ⑤ 3-4시간 ⑥ 4시간이상

2.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십니까?  
① 연속극 ② 오락프로그램 ③ 뉴스/시사프로그램  
④ 교육프로그램 ⑤ 기타( )
  
3. TV프로그램에서 심리극[사이코드라마/심리치료극]을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이하 계속) ② 없다 (7번부터 시작)
  
4.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① 1번 ② 2-3번 ③ 4-5번 ④ 5번 이상 ⑤ 즐겨본다
  
5. TV프로그램에서 심리극을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① 재미있다 ② 재미없다 ③ 신기하다 ④ 좋다 ⑤ 기타( )
  
6. TV프로그램에서 심리극을 보신 후, 귀하가 직접 심리극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① 하고 싶다 ② 하고싶지 않다  
③ 주변사람에게 권하겠다 ④ 기타( )
  
7. 이전에 심리극[사이코드라마/심리치료극]을 직접 보시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몇번: ) ② 없다 ③ 기타( )
  
8. 다음 중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① 심리극 ② 심리치료극 ③ 사이코드라마 ④ 기타( )
  
9. 귀하께서는 심리극[사이코드라마/심리치료극]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